

## 로스쿨에 로펌 설치... 실무연수 기회 제공 필요하다

-日, 74개 로스쿨 중 11곳에 부설 로펌... 실무-이론 교육-  
-美서도 미취업 졸업생 고용... 중국은 교수도 소송업무 맡아-

“한국 로스쿨에도 부설 로펌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미·일·중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들이 7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로스쿨 내에서의 로펌 설립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에서 열고 로스쿨 재학생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부설 로펌 설립을 논의했다. 미야가와 시게오 일본 와세다대학 법무연구과 교수, 마크 벨렛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마광 중국 절강대 교수가 참석해 자국의 현황과 사례를 소개했다.

### 1. 한국, 변호사법 개정하여야 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로스쿨에 법률과 법기술 교육을 강제하고 있지만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실무를 견학하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로스쿨 내 로펌 설치를 주장했다. 로스쿨 실무교육은 로스쿨이 비정기적·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리걸 클리닉이나 모의재판, 로펌 등 외부 기관에서의 훈련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커리큘럼에서 실제 기록을 가지고 소송 실무를 배우고 서면작성 훈련을 할 기회를 얻기는 드물다.

한 교수는 로스쿨 부설 로펌의 업무를 로스쿨 교육과 연계하면 실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지역 봉사 등 공익 활동에도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비영리 로펌 형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는 “법조인 출신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해 실무 출신 교수들이 변호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법무법인(공익) 형식의 비영리기관으로 부설 로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미·일·중, 로스쿨핌으로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 74개 로스쿨 중 11개 대학에 로펌이 부설돼 있다. 부설 로펌은 로스쿨과 독립된 경영 책임을 지지만, 캠퍼스 안에 로펌 사무소를 설치해 로스쿨 교육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로펌 사무소에서 실무교수와 연구교수가 팀이 돼 실제 사건 기록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실무교육과 이론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 미야가와 시게오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사법연수제도가 1년으로 단축되면서 부족한 현장 실무훈련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크 멜렛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로스쿨 부설 로펌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졸업생들을 로스쿨 핌이 고용해 실무 훈련을 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변호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로스쿨과 로펌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가 소송과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다. 교수가 변호사 업무를 많이 맡으면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업무량을 제한하고 업무 수입 비용의 일부를 로스쿨에 내게 하거나 특정 로펌에서만 실무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마광 중국 절강대 교수는 “로스쿨 전임교수가 로펌에서 변호사 실무경험을 쌓게 되면 강의와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전제인용)